쓰레기 더미 위 움막서 살던 가난한 소년공

소년공 이재명

1978년 야구 글로브 공장인 '대양실업' 소년공 시절의 모습.
이재명 후보 측 제공

지하 벗어나 1층으로 이사한 어린 시절의 이재명

1980년 성남으로 이사온 지 4년 만에 지하를 벗어나 처음 1층으로 이사한 날 가족들과 밥을 먹는 장면을 셋째 형이 촬영한 모습.
이재명 후보 측 제공

어린시절의 이재명

1970년대 후반 셋째형, 막내동생과 성남 자택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이재명(오른쪽).
이재명 후보 측 제공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은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이후 5세 무렵인 1970년경, 가족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당시 광주군 중부면 지역)로 이주했다.

가정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이재명 가족은 달동네, 즉 무허가 판자촌 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이재명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 시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움막 짓고 살았다"고 회고했다.

성남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재명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허드렛일로 생계를 도왔다. 다섯 형제도 각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은 등록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또래 친구들이 등교하던 시간에 이재명은 공장으로 출근했다. 소년공이 된 것이다. 소년공으로 오전에는 일하고, 밤에는 고무신 배달 아르바이트로 10대를 보냈다.

이재명은 소년공 시절 입은 장애로 병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유독성 화학물질(청산가리계 접착제 등)을 다루던 일을 했는데, 보호장비 없이 이 물질을 다루다가 팔과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은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현재도 왼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휘어 있으며, 일정 근력 이상을 가하면 통증이 온다고 알려져 있다.

신발공장, 고무공장, 재봉틀공장 등을 전전하며 소녀공의 삶을 이어가던 이재명은 "나를 바꾸려면 공부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라디오와 참고서로 독학해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다. 이후 장학금을 받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은 지역 사회로 돌아가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가 됐다. 이재명은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차별과 고통,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자신 같은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절망 속에서 약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에서 '정치인 이재명'으로 인생 항로가 바뀐 이유는 성남시의료원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의료원은 제 정치의 출발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그는 "제가 인권변호사로 지내다가 시민운동에 뛰어들 무렵에 성남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했다"며 "이때 저도 공동대표로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지만 당시 시의회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단 47초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다"고 회고했다.

이재명은 한 인터뷰에서 "현실을 바꾸자.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다른 이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고 다짐했다"고 했다.

성남시의료원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만에 부결되자, 시장이 되서 추진하자는 마음먹고 시장에 도전했다.

이재명은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3년 11월 성남시장 자격으로 성남시립의료원 기공식에 참석해 버튼을 눌렀고, 2017년 하반기 성남시의료원이 문을 열었다.

이재명은 시장 취임 직후 파산 직전이던 재정 안정을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선도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광역단체장으로 발돋움했다. 기본소득형 농민수당,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개발 이익환수제 등을 도입해 공정과 실용의 브랜드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경야독으로 사법고시 합격
성남시의료원 기득권에 막히자
인권변호사서 정치로 항로변경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댐 5분 ,1필지
토목완료,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룸,노래홀,홀덤빠)
▶ 6층 (전용 60평)
(보2천,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융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